

# 역사적 선례의 창조적 이용

-르 꼬르뷔제의 경우-

강 혁

(경성대학교 건축도시학부 교수)

## 1. 들어가는 말

건축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한 가지는 한 시대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떻게 구축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혹은 건축사에서의 혁신과 역사적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는 건축사에 있어서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묻는 것에 다름 아닌데, 특히 근대 건축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물어져 왔다.

왜냐하면 근대건축 운동(Modern Movement), 혹은 모더니즘 건축을 주도한 선구적 건축가들과 그들에 동조한 페브스너나 기디온 같은 1 세대 역사가들이 근대건축이 과거 건축의 전통에서 전적으로 떠난 새로운 창안(invention)임을 힘주어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문화혁명으로서 근대 운동은 서구에서 르네상스 이래로 이어져 내려온 건축의 인본주의적 전통(humanistic tradition)과는 급진적으로 단절한 새로운 전통(tradition of the New)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근대 운동을 구성했던 미래주의자, 구성주의자, 신조형주의자 등 아방가르드들과 모더니스트들이 과거의 인습과 규범을 부정하고 실험적 시도를 통해 건축의 새로운 언어를 개척하고자 했음을 건축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저명한 건축사가인 기디온이 저술한 근대건축의 고전적 역사인 「공간, 시간, 건축」의 부제가 “새로운 전통의 성장”인데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sup>1)</sup>, 근대건축은 산업혁명, 시민혁명, 과학혁명, 그리고

기술의 진보가 초래한 근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는 건축 내부(discipline)의 일대 혁신이자, 유리된 삶의 세계와의 재통합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역사 이해는 곧 일반화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계의 동시대 건축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시각과 해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판에 붙여졌다. 제1 세대 역사가를 잇는 제2 세대 역사가들은 선대의 관점을 일면 수용하면서도 모더니즘 건축이 전적으로 새로운 창안이 아니라 근대 이전의 전통에 적지 않게 빚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근대건축사의 수정주의적 시각이 대두한 것이다. 레이너 뱌헨이 근대 건축의 형성에 작용한 아카데미즘의 영향을 강조하거나<sup>2)</sup> 콜린 로우가 근대건축의 작품들 속에 내재한 고전주의적 성향을 지적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sup>3)</sup> 최근의 전기 근대(pre-Modern) 건축에 대한 연구의 성과로 우리가 보통 건축의 근대성(modernity)이라 부르는 것, -특히 근대의 합리적인 사고와 담론-이 결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도, 과거 전통과 무관한 것

1) S. Giedion,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 Press, 1966(「공간, 시간, 건축」, 김경준 역, 1998, 시공문화사)

2) 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The MIT Press, 1980(1960), pp. 14-43, & p.327

3) C. Rowe,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Cambridge, The MIT Press, 1988(1976). 그의 글들은 출간은 늦었지만 대부분이 1940년과 50년대 쓰여지고 발표된 것들이다.

도 아니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sup>4)</sup> 근대건축의 형성과 그 정체성에 대한 이제까지의 역사적 기술이 적지 않게 조작적인(operative) 신화였음이 규명된 셈이다. 과학사에서와 달리 예술사, 특히 건축사에서 전적인 단절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과거 전통과 관행(convention)의 어떤 것이 보존되고 어떻게 변용되어 새 전통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왜 모더니즘 건축 이전의 다양한 시도들이 단명하게 끝난 데 비해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라는 짧은 시기에 과거와는 상이한 건축의 어휘들과 문법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눈부신 업적들이 산출되었으며, 그 중의 일부가 지구촌의 건축의 보편 언어로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질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근대 특유의 신기술과 공법의 등장이라든가, 이념과 미학의 대두, 혹은 사회와 도시의 구조적 변화라는 역사적 기술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근대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당시 건축의 새 지평을 열고자 열망했던 선구적인 모더니스트들의 창조적인 노력과 그것을 수용할 만한 시대적 분위기라는 내재적 설명이 추가되어야 더 타당할 것이다.

특히 르 꼬르뷔제와 같이, 과거의 관습과 선례를 일면 계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 부정하고 극복하고자 한 건축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는 당시까지 지배적이었던 두 경향, 즉 과거를 배제한 채 무에서 미래를 열겠다는 아방가르드들의 비역사적인 유토피아니즘,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줄 모범(model)으로서 과거의 규범이나 양식에 기대려는 퇴행적인 복고주의 내지 전통주의와는 다른 입장에서 있었다. 그는 동시대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에 바탕을 두면서 당대의 사회와 건축이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과거 전통을 무조건 배제하지도 추종하지도 않았다.

근대건축사에서 르 꼬르뷔제는 근대적 상황에서 제기된 인간 정주의 문제, 도시 조성의 문제, 건축 고유의 문제에 대하여 탁월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가, 건축이론가, 도시계획가로 간주되고 있다. 그는 친구간의 갈등,

투쟁의 장 속에서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 전통, 선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근대건축의 성립에 크게 기여했다.<sup>5)</sup> 한 시대가 막을 내린 오늘날, 그의 대안과 이론은 현대도시의 심대한 문제점을 야기한 원인으로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그의 이론과 실체가 지닌 양면성과 모순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 혹은 근대 이후의 현대 건축의 전개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sup>6)</sup> 계승하거나 극복하여야 할 대상으로 그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건축과 이론이 근현대 건축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당연히 그의 이론과 실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마련되었는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그가 “가장 저명한 근대건축가이지만 가장 전형적인 근대건축가가 아니라면”<sup>7)</sup>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과거와 현재를 관계 맺는 독특한 방식에 있다. 근대건축에서 르 꼬르뷔제가 달성한 업적과 영향력은 과거 역사와 선례에 대응하는 그의 독특한 전략 및 방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우선 그의 모더니스트로서의 특이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이자 건축에 관한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을 향하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그가 역사적 선례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실제의 디자인의 전략으로 그가 제시했던 주요 규칙들을 검토 분석해봄으로써 과거 역사를 현재의 상황과 연결 짓고 관계 맺는 그의 독특한 방식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sup>8)</sup> 마지막으로 그러한 그의 방식에 대한

5) 꼬르뷔제 자신은 ‘종합’이라는 말에 집착했다. 그 말은 [에스프리 누보](신정신)지 창간호 서문 첫 문장에 출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정신은 곧 종합의 정신이다. 종합이라는 말은 꼬르뷔제라는 건축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어의 하나이다. 그는 겉보기에 양립할 수 없을 것들을 통합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비판적 역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의 ‘종합’은 그저 ‘봉합’에 불과하고 내부에 모순들을 안고있는 그의 건축을 호도하는 신화에 불과하다.

S. von Moos,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Cambridge, The MIT Press, 1982(1968), p. 279

6) 한 예로 리처드 마이어를 위시한 뉴욕 5에 미친 그의 영향이라든가 최근 그의 어법을 디자인의 기초로 도입하려는 성향이 다시 대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7) 김광현, “코르뷔제”, 『103인의 현대사상』, 김우창외의 엮음, 민음사, 1996, p. 581

8) 이상의 연구는 주로 전기 꼬르뷔제, 즉 그의 형성기

4) 비근한 예로 신고전주의 건축의 근대성을 다룬 J. Rykwert의 「최초의 근대인들(The First Moderns)」이나 A. Vidler의 「건축적 글쓰기(Writing of the Walls)」을 들 수 있다. 18, 19세 전기 근대건축의 성격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저술이 쏟아져 나오 고 있다.

전반적인 설명과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 2. 모더니스트로서 꼬르뷔제의 특이성

르 꼬르뷔제의 건축을 가능하게 했던 다양한 배경과 활동의 궤적은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다. 그의 출생지인 라 쇼 데 풍(La Chaux-de-Fonds)의 장식미술 학교에서의 훌륭한 스승이었던 라 플라티니에(C. L'Eplattenier)의 가르침, 시계 도안사로서 그의 기계와 장식미술가로서의 교육 배경, 고향인 쥐라 산악 지역의 풍광과 그의 지중해에의 동경, 젊은 시절 동방으로의 긴 여행, 선배 건축가 페레, 베렌스, 로스의 영향과 감화, 큐비즘과 더 스틸 같은 동시대 미술 운동과 사조들의 영향, 당대의 실용적인 공업건축과 근대의 기계에 대한 열광적 관심 등은 그의 건축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로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근거들을 그저 열거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꼬르뷔제의 태도와 그것들을 동시대의 상황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가 자기 시대의 문명과 사회, 도시와 건축과 거주가 처한 위기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sup>9)</sup> 그는 생산의 문제, 건립의 문제, 주거의 문제, 기술의 문제, 미학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근대적인 삶의 가져다준 가능성과 위기를 건축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시대는 위대하지만 기로에 선 시대이며 위기의 시대”라는 것이다.<sup>10)</sup> 그러한 그의 문제 의식은 합당한 대안 내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의 깊게 현상과 사물을 관찰하는 시선을 제공했으며 과거와 전통을 현재의 시각에서 보려는 태도를 가져왔다. 둘째로 그는 동시대의 조류를 흡수하는 데 매우 열심이었으며 여타의 모더니스트들과 달리 과거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은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보자르의 건축사 수업을 받기도 했고 레타루올리(Letarouilly)나 쇼와지(Choisy)의 건축사 책을 공부하였다. 동방으로의 여행에서 위대한 고전들과의 대면이 그의 유명한 언명인 “기초적 기하학이 입체를 지배하며”, “빛 속에 어우러진 매스들의 완벽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유희”로서 건축이라는 깨달음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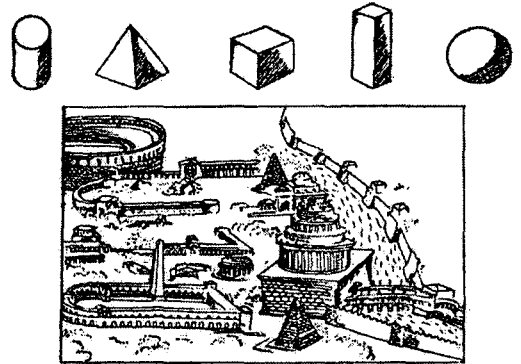


그림 1. 로마의 교훈 : 기본적인 입체로 구성된 고전

셋째로 그가 남아 사라지는 제작의 전통과 동시대의 첨단을 가는 건축 및 예술을 동시에 습득하고 체험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시계도안사로서 장식미술의 교육 배경과 페레, 베렌스 밑에서의 새로운 공법과 공작연맹과의 접촉, 프리즘 운동에의 참여가 그런 예들이다. 손에 의한 공예와 공업에 의한 대량생산과의 충돌, 장식미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자각<sup>11)</sup>, 양식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건축이 새로운 생산의 길을 가게되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생겨날 수 있었다. 넷째로 그의 근본주의자적 태도이다. 그는 사물을 밑바닥까지 알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일부 유파들이 거둔 작은 성공이나 손쉬운 성취를 경멸했다. 그는 “진리 그 자체와 대면하고 싶다. 오늘 혹은 내일, 새로운 예술이 등장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상으로부터 비롯하게 될 것이다. 순수하고 적나라한 사상, 그것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sup>12)</sup>. 그의 근본주의적 태도는 보편성의 추구로 나아가게 하며, 과거의 것을 단지 지나간 옛 것으로 보고 현대

(formative years)라는 기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9) 이것이 그의 주저 「건축을 향하여」를 지배하는 주요 의식 중의 하나이다. Le Corbusier, *Toward a New Architecture*, London, Preager, 1960(1927)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장성수역, 태림문화사, 1987)

10) 그의 진단과 위기 의식은 문명의 문제(근대의 문제)를 건축의 문제와 동일시하여 “건축이나 혁명이냐”라는 다소 과격한 구호로 귀결되고 있다. 즉 건축 문제의 해결을 통해 근대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상주의적이고 과대망상적인 사고인 것이다. Le Corbusier, *Toward a New Architecture*, p.269(국내 번역판, p. 253)

11) 그가 쓴 「오늘의 장식 미술」에서 이런 입장을 내비친다. Le Corbusier, *Decorative Art of Today*, Cambridge, The MIT Press, (1925)

12) S. von Moos, *Le Corbusier*, p. 12

적인 것을 새 것으로만 보는 관점을 지양하게 한다. 반대로 가장 현대적인 사물 속에서 오래된 조형의 원리를 보며, 동시에 과거의 고전에서 가장 현대적인 조형의 법칙을 채굴하는 통찰력을 가져다주었다. 그는 항상 과거를 현재와 연결 지으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무시간적인 공통 원리를 찾고자 하는 자세를 견지했다.<sup>13)</sup>

1909년 그는 피렌체 근교 갈루조(Galluzzo)에 있는 카르투시오 파의 수도원을 방문하였다. 훗날 꼬르뷔제는 거기서 자신의 건축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영감을 얻었다고 술회하였다. 왜냐하면 오래된 수도원 공동체에서 그는 커뮤니티의 이상적인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sup>14)</sup> 각 공동체 하나 하나가 완전한 독립을 누리고, 자연 환경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식사와 예배를 위한 공동의 영역이 확보되어 있는 수도원의 공간에서 꼬르뷔제는 그가 고민하던 도시 산업사회의 근대적인 삶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인 생활 영역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그가 근대의 도시와 정주 공간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덕분이었다. 그의 저서 「건축을 향하여」에 묘사된 ‘보지 못하는 눈’은 이러한 과거의 선례에서 표면적 양식이나 형태를 넘어서 내재하는 원리나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없는, 통찰력을 결여한 눈을 비판한 것이었다.

한편 그는 공동생활의 또 한 이상적인 모델을 수도원과 전혀 다른 사물이자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기계인 기선에서 발견하기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선은 ‘새로운 정신’에 의거해 조직된 세계의 실현인데, 거기서 수도원과 흡사한 공동생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쾌적한 항해를 위해 익명의 선객들이 장시간 함께 지내는 생활공간의 배치와 전망을 위한 독크 등은 그를 크게 감동시켰다. 그는 기선이라는 새로운 사물이 오래된 수도원이 간직해온 원리를 효율적인 근대 공간의 조직과 미학으로 변형시켜 달성하고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수의 익명의 사람이 집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근대 도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안

의 실마리를 그는 이질적인 수도원과 기선의 공간 구성에서 찾았고, 그것은 그가 보기에 당대의 집합 주거에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었다. 양자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공동체 거주 공간인 마르세유의 집합 주거 유니테 다비따지온, 리용 부근의 수도원인 라플레뜨, 파리 대학 기숙사인 스위스 파빌리온으로 그의 시도는 결실을 맺었다.

이질적인 역사적 선례와 현대를 결부시키는 그의 독특한 방식은 그의 도시 계획의 비전인 빛나는 도시에서도 발견된다. 동양의 도시가 설계되었던 방식인 앙코르와트 사원이나 루이 14세의 베르사이유 궁전이 근대 도시의 구성 원리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가하면 토니 가르니에의 리용 부근 공업도시 계획안이나 페레의 탑상의 도시가 영감의 원천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빛나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질서의 부여, 전체적 통일성, 시적 감각, 넓은 공지 등의 특성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그의 유명한 건축적 산책로(promenade architecture)라는 개념도 고대 아크로폴리스와 신전과의 대면 속에서 생성되었다. 건축적 산책로란 관찰자의 움직임과 더불어 경험되어지는 연속적인 공간 체험의 관현악적 효과로 정의할 수 있다.<sup>15)</sup> 그가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오르며 주의 깊게 본 것은 19세기 건축사가 강조하던 고전적 오더 같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동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건축에서의 장면 변화에서 경험과 지식이 상호 작용하면서 얻게되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 공간이었다. 여기엔 그가 관심있게 보았던 쇼아지의 역사서의 영향이 드리워져 있기도 했다.<sup>16)</sup>

이상의 몇몇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게 역사적 선례는 피상적으로 모방해야 할 대상도, 맹종해야 할 법식(cannon)도, 무조건 부정하고 타파할 낡은 전통도 아니었다. 대신 문제 의식을 지닌 현재의 눈으로 볼 때<sup>17)</sup> 새롭게, 그리고 전혀 다른 모

13) 그의 건축을 일러 “영속적인 그러나 당대의 것인”이라는 묘사는 그러한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보인다.

P. Serenyi, “Timeless but of its Time: Le corbusier’s Architecture in India” in *Le Corbusier*, ed. by A. Brooks, Princeton, Princeton U. Press, 1987, p. 163

14) S. von Moos, *Le corbusier*, p. 146

15) S. Anderson, “Architectural Research Programme in the work of Le Corbusier”, *Design Studies* V.5, N.2, 1984, p. 152

16) R. A. Etlin, “Le Corbusier, Choisy, and French Hellenism: The Search for New Architecture” in *The Art Bulletin*, Jun. 1987, p. 275

17) 공교롭게도 20년대 그는 야간 작업과 흑사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을 잃는다. 한쪽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관찰해야하는 그의 처지가 더욱 예민하고 독특한 보는 방식(way of seeing)으로 유도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는 흥미롭다.

V. Scully, “Le Corbusier, 1922-1965” in *Le Corbusier*, ed. by A. Brooks,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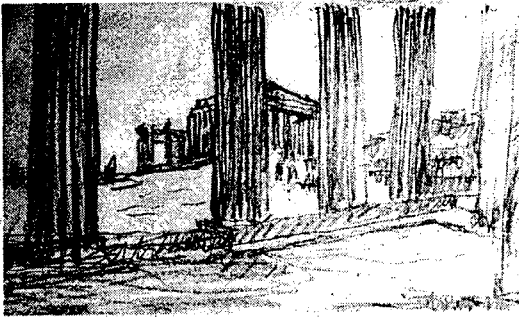


그림 2. 아크로 폴리스의 스케치

습으로 나타나서 현실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 있는 텍스트이자 유용한 자원이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서구 고전건축에 대한 특유의 시각과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젊은 시절 그리스, 이태리, 소아시아로 긴 건축 기행을 떠났으며 아토스, 아테네, 로마, 폼페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위대한 고전 건축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건축관을 형성할 수 있었다.<sup>18)</sup> 그것은 시대와 무관하게 위대한 건축을 구성하는 원리였다. 바로 건축이 갖는 영속적 가치, 즉 보편적인 가치였으며 그가 보기에 근대에도 여전히 요청되고 유효한 것이었다. 그는 파르테논을 삼 주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방문하였고 여러 각도에서 다른 태양 빛 아래 스케치했다. 건물의 두드러진 특징을 포착하고 기억 속에 이미지를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파르테논 등 고전에 내재하는 기하학의 정신과 수학적 원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자기 시대의 기계와 비교했다.<sup>19)</sup> 이러한 그의 역사적 선례에 대한 존경과 접근 방식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은 고고학적 엄밀성과는 거리가 먼, 예술가적 영감과 상상력에 의한 것이되 동시대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무장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독특한 그의 태도가 모더니스트로서 그의 남다른 위치를 마련해주었으며, 특유의 건축 이론의 전개와 근대건축의 진로를 모색하는 바탕이 되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 3. 「건축을 향하여」에서 역사적 선례와 현재

18) Le Corbusier, *Journey to the East*, ed. by I. Zaknik, 1987. 이 책은 그가 가장 먼저 써서 가장 나중(1966)에 출판한 글이다.

19) W. Jr Curtis,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Oxford, Phaidon, 1986, p. 33.

르 꼬르뷔제는 생전에 여러 권의 책을 썼지만 그 중 「건축을 향하여」(1923)가 가장 유명하고 그의 건축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sup>20)</sup> 그것은 “새로운 정신”(L'Esprit Nouveau)지에 발표했던 글의 모음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20세기 초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건축 저작물로 간주된다. 그 내용은 도발적인 발언과 선언적인 문구로 가득 차서 간단치 않은 논쟁거리를 내포하고 있다. 책에서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사실은 그는 결코 단순한 기능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건축에 수반하는 다양하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여러 질적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통합하려는 그의 복잡한 면모가 드러나 있다.

「건축을 향하여」의 집필 동기는 자신의 건축관과 동시대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길을 피력하면서 기계 시대에 건축이 처한 위기적 상황을 타개할 처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는 거기서 영원한 규범을 제시하는 전통의 역할을 강조한다. 선대 고전의 가르침은 오늘의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정신이 동시대의 타락한 건축에서가 아니라 근대의 기술 공학에 스며들어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만한 것이다.<sup>21)</sup> 즉 고전 건축과 근대의 기계가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제작(making)의 원리를 동시대의 건축은 전혀 구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망각된 건축의 가치는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7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을 향하여」는 매우 간결하고 명쾌한 문장에다 확신에 찬 어조로 쓰여져 있다. 먼저 꼬르뷔제는 당대 건축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하고 반면 근대 기술공학은 융성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우월성을 찬양한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건축은 기술자의 제도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얼핏 생각하듯 기술공학이 편의, 효율성, 기능성의 미덕을 확보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화를 달성하고 보편적인 우주 질서에 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학의 산물인 근대의 기계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규율에 지배되는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근대 공학은 근본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구사하여

20) 「건축을 향하여」의 원 제목은 'Vers une Architecture'인데, 1927년 F. Etchells에 의해 년 영어로 번역되면서 제목이 'Toward a New Architecture'라고 잘못 번역되었다. 한국어 번역판도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라고 붙여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1) *Toward a New Architecture*, pp 17-24(국역판 pp 17-23)

올바른 예술의 길을 가고 있고, 건축은 양식화와 장식에 치우쳐 몰락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기계를 찬양하는 이유가 기능과 효율이기 보다 과거 위대한 걸작과 고전이 공히 지녔던 조화, 단순성, 아름다움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그는 건축을 구성하는 주 요소가 장식이나 양식과 무관한 입체, 면, 평면임을 주장한다. “건축이란 빛 속에 어우러진 입체의 완벽하고 정확하며 장엄한 유희”라는 유명한 언명을 제시하면서,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건축에는 원초적이고 순수한 기하학적 입체가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들과 미국의 곡물 사일로와 공업 건축을 비교하면서 필요에서 나온 기술자들의 산물이 예술의 대도를 걷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축이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원리인 것이다.

규준선은 이야기하면서 꼬르뷔제는 다시 역사로 되돌아간다. 규준선은 건축의 영원한 규칙 중의 하나를 헤아린다. 그는 프랑스와 브롱델의 저서 「건축강의」에서 생 드니의 개선문을 인용한다<sup>22)</sup>. 건축의 구성법칙으로 내재하는 규준선은 질서를 부여하고 확실성을 제공한다. 그것은 과거의 노트르담이나 뻘띠 트리아농 뿐 아니라 오늘의 자신의 주택을 지배하는 내적 규율이다.

책 중반에서 꼬르뷔제는 근대라는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거기에 존재하는 ‘새로운 정신’을 말하고자 한다. 과거의 질곡에서 해방된 공학의 산물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의 담지자로서 기계를 찬미하고 당대의 최신 기계인 기선, 비행기, 자동차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a machine for living in)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펼치면서 건축이 따라야 할 이상적 모델로서 서구 건축사의 위대한 고전인 파르테논과 당시 공학의 산물인 최신 자동차를 제시한다. 그리고 양자의 비교에서 공통적인 만물의 원리를 도출한다. 그가 보기에 파르테논은 가장 완벽한 기계인데, 표준화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파르테논의 아름다움은 표준화를 통한 선택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것이 신전을 완벽과 조화에 이르게 했다. 표준화의 원리가 동일하게 자동차에 적용됨으로써 그것은 고도의 미적 수준과 사회적 요구 조건인 대량생산과 기능성을 달성하고 있다. 건축(주택)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

실은 정반대이다. 동시대 건축은 이런 보편적 원리를 상실하고 과거의 수공예나 장식 미술에 머물고자 한다. 건축이 자신의 기술의 근원을 전통(파르테논)과 현대(자동차)에서 재발견할 때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예술에 요구되는 고결한 가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인 것이다.

그의 역사적 선행으로서 고전과 기계 미학의 동일시는 그리스 신전과 자동차의 비교에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 표준화에 따른 완벽성의 성취 과정을 보여주기 위하여 패스툼의 바실리카 신전에서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으로의 진화와 1907년의 움베르(Humber)에서 드라쥬(Delage)로의 미적 세련화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다.<sup>23)</sup> 당대의 아방가르드들과 달리 건축의 고전적 가치가 현대적 상황과 상치하는 것이 아니며, 버려야 할 유산도 아님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신구 문명의 대표적 사물을 사진으로 비교하고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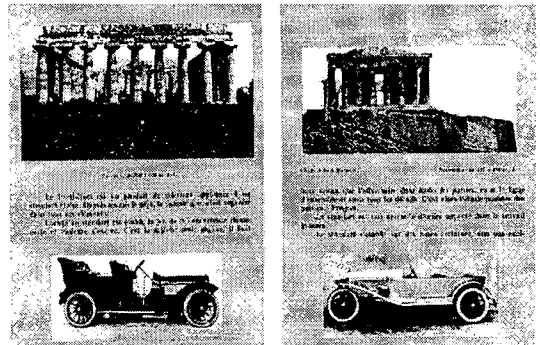


그림 3. 표준화에 의거한 신전의 진화와 자동차의 진화의 비교

이상에서 보았듯 「건축을 향하여」에서 그의 논조는 매우 독특한 것인데, 전통과 현재를 연결하면서, 근대의 대량생산의 문제, 기술공학이 가져다준 미학적 성취, 조형에서의 시적 가치, 디자인의 윤리를 결부시키고 통합하려는 야심찬 노력이다. 그러한 논리 이면에는 시대의 양식(style)이라는 단순한 외형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규칙이 있다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다.<sup>24)</sup> 이

23) Le Corbusier, *Toward a New Architecture*, pp 124-125 (번역서, pp 116-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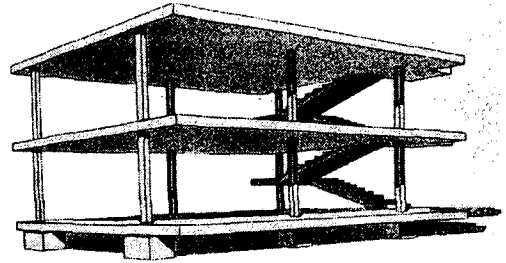
24) A. Colcuhoun,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Le Corbusier and Paradox of Reason" in *Modernity and Classical Tradition*,

22) *Toward a New Architecture*, p 63(국역판 p 61)

점에서 꼬르뷔제는 선형적인(a priori) 미적 가치의 존재를 신봉하는 근본주의자, 본질주의자, 이상주의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수사학이나 논리의 합당성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선례를 끌어오고 그 권위에 기대는 방식이다. 또한 과거와 전통을 현재의 필요나 가치에 따라 조명하고 변형하는 능력이다. 그것이 때로 자의적이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접근에 의해 역사적 선례는 재발견되었다.<sup>25)</sup> 그의 새로운 건축 이론이 과거와의 필연적인 연속으로 비쳐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 그의 전략의 비범함이 있다.

#### 4. 실제 디자인의 규칙에서 전통과 현재

르 꼬르뷔제는 근대의 새로운 건축을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의 규칙들을 정초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sup>26)</sup>. 그는 실제의 디자인이 개인의 주관적 표현이나 즉흥성에 의거하기 보다 보편적인 규범이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한 그의 태도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모더니즘의 견지에서 볼 때 낯선 것이며, 오히려 전 시대 아카데미의 전통에서 통용되던 규칙 체계를 연상시킨다. 이 점에서 볼 때 전통과 현대를 매개하는 모더니스트로서 꼬르뷔제의 특이성을 발견하게 된다.<sup>27)</sup> 그의 규칙들은 근대 사회의 요구와 기술적 상황에 대처하여 새로운 건축의 문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서구 건축사의 전통 속에서 들여다 볼 때라야 그 특성이 제대로 읽힌다는 또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하튼 그가 자신의 건축을 향도하기 위하여 수립한 디자인의 규칙들은 결과적으로 근대 건축의 일반 언어로 자리잡았고 오늘날까지도 통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그것은 도미노 시스템, 새로운 건축의 5원칙, 모듈러 등과 같은 것들인데, 이제는 진부해지기까지 한 공식들이다.



Le Corbusier, Maison Dom-ino prototype, 1914

그림 4. 도미노 주택 1914

도미노 주택(Maison Dom-ino), 혹은 도미노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골조의 체계는 꼬르뷔제의 규칙들 중 가장 먼저 창안된 것이다. 그것은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한 가장 기본적인 구조 체계이자 형태로서 근대의 기술을 사용하여 축조 과정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sup>28)</sup> 도미노 시스템은 1차 세계 대전 전후의 주택난에 대처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났다. 근대 건설 산업기술을 이용해 단 기간에 표준화된 부재를 갖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대량생산하고 그 내부(infill)는 필요에 따라 채운다는 사고였다.

따라서 도미노는 주거난이라는 현실 사회의 사태에 부응해 탄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미노의 의의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철근 콘크리트가 발명된 이래로 그것을 건축에 어떻게 응용해야할 지에 대해 많은 시도가 있었고, 페레와 같이 탁월한 응용의 성과도 목격하게 되었다. 도미노의 중요성은 꼬르뷔제에 이르러 비로소 축조/형태/공간이 통합된 체계적인 방식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한 근대의 구조와 공간 형성의 기본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골조로서 바닥과 기둥을 두고 주택의 간섭이와 기능을 완전히 독립시키며 계단으로 상하 공간을 연결시킨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시스템이다. 도미노의 성공은 재료의 특수한 해가 아니라 표준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형태 변형과 적용이 가능한 보편적인 체계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도미노에서 눈여겨 볼 것은 콘크리트 골조 체계에서 벽체가 기둥과 분리되어 안으로 들이밀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벽체는 구조적 기능에

Cambridge, The MIT Press, 1989, pp 90-92

25) S. von Moos, *Le Corbusier*, p49

26) A. Colquhoun, "Displacement of Concepts in Le Corbusier", i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pp 51-66

27) L. Benevolo,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V.2, Cambridge, The MIT Press, 1977(1966), p. 436

28) E. Gregh, "the Dom-ino Idea", *Opposition 15/16*, 1979, pp. 60-87

서 해방되어서 순수하게 스크린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sup>29)</sup> 이는 서구 건축의 역사에서 벽체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후나 채광 같은 실용적 목적에 따라 개구부를 낼 수 있고 미학적 이유에서 마음대로 화사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자유는 전통적인 구조벽(bearing wall)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건축의 역사에서 지속되어온 축조와 형태 사이의 필연적인 결합 체계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도미노 시스템은 단순한 골조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일반적인 유형(formal type)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층 발전된 디자인의 규칙으로 발전하여 그의 20년대 호화 빌라의 구성 원리가 되는가 하면, 도시 형성의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의 도미노 시스템은 다시 “새로운 건축을 위한 5원칙”(Five points for New Architecture)으로 발전하게 된다. 필로티, 옥상정원, 자유로운 평면, 가로로 긴 창, 자유로운 입면이라는 그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혁신적 의미는 각각을 서구 고전 건축의 전통적 규범과 법식에 비추어볼 때 잘 이해된다. 즉 그 원칙들은 알란 콜콰흐이 잘 지적했듯이, 서구 건축을 형성해온 역사적 선례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역전, 혹은 도치(displacement)시키는 방식으로 도출된 것이다<sup>30)</sup>. 달리 말해서 꼬르뷔제의 5원칙은 분명 역사적 전통과의 단절로서 새로운 창안으로 이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과거 규범과 무관한 채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 1원칙인 필로티는 건물을 기둥을 통해 지면으로부터 들어올리는 일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입면의 3분할을 부인하고 고전적인 기단부를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흔히 필로티는 지면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일컬어지지만 동시에 비가시적인 공간이 기단부를 대신하게 되었으므로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즉 과거의 공허부가 매스를 대신하면서 주층(piano nobile)의 역할을 과거와 다르게 변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땅과 건물 사이에 수천 년간 유지되어왔던 결합원리를 다르게 규정하는 일이기도 하고 건물과 옥외공간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로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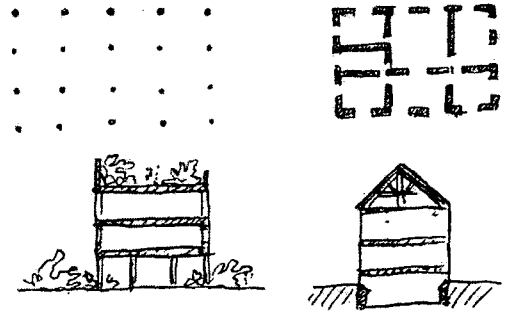


그림 5. 5원칙 중 필로티를 과거선례와 비교 설명한 그림

제2원리인 옥상정원 역시 전통적인 박공 지붕의 솟아오름과 비교할 때 그 의의를 잘 깨달을 수 있다. 기선의 덱크부와 유사한 옥상정원은 박공 대신 평지붕을 도입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평지붕과 옥상 정원은 하늘과 건물 사이의 오래된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일일 뿐 아니라, 개방된 공간인 옥상정원이 과거의 다락층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제3원리인 자유로운 평면은 전통적인 수직 연속벽의 요구에 의해서 파생되는 입면의 배열을 타파한다. 그것은 도미노 시스템의 기둥 구조가 가져다준 결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구조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부공간 조성의 자유를 뜻하기도 한다. 비구조적인 간막이를 자유롭게 놓을 수 있음으로 해서 과거의 정형적이고 대칭적인 방들의 배열에서 벗어나 공간의 자유와 기능의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제 4원리인 수평 띠 창 역시 구조가 준 가능성이기는 마찬가지인데, 가로로 긴 창은 전통적인 조적의 방식으로 벽을 쌓을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수직창과 대비된다. 과거의 수직 창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형태로 파사드를 구성했다면 수평의 긴 창은 전적으로 다른 입면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하며 빛의 유입도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것은 밝은 실내공간을 생성하면서 실내와 외부와의 관계, 외부 일광의 수용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이상의 결과로 근대건축은 고전 건축에서 목격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개구부의 배치와 입면에서 벗어나 제5 원리인 자유로운 입면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는 벽체 구조와 입면 디자인의 분리를 뜻하는 데, 이천년 서구 건축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었다. 그것은 꼬르뷔제가 과거 건축의 구

29) 도미노와 관련하여 실제로 르 꼬르뷔제가 구조의 표현을 두드러지게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S. Anderson, "Architectural Research Programmes in the work of Le Corbusier" in Design Studies V. 5, N. 2, 1984, p 153

30) A. Colquhoun, "Displacement of Concept in Le Corbusier", pp. 51-66



성 및 형태 원리를 의식하고 거기에 근대 기술이 제공한 새로운 축조의 가능성을 이용하여 대조적인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성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5원칙은 고전 건축의 기본 규범의 변증법적 지양의 성격으로서 규칙인 것이다.

흥미있는 사실은 그가 5원칙을 적용하여 지은 빌라들이 근대적인 형태와 공간을 지닌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르네상스의 이상적 빌라들의 비례와 상통하는 입면과 평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sup>31)</sup> 그러므로 그의 빌라들은 모던하면서 고전적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며, 역사적 선례가 그의 건축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현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유명한 모듈러(Modulor)는 근대 사회의 새로운 측정 체계, 혹은 척도 체계를 제안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sup>32)</sup> 그것은 서구 고전건축에서 형태와 공간의 조성 원리인 황금비, 즉 질서와 조화와 통일의 비결을 근대사회를 건설하는 데 절실한 과제인 표준화와 조립화의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심에서 비롯되었다. 모듈러는 르네상스 이래 최초의 건축 비례의 시스템이다. 어떤 모더니스트도 것처럼 비례의 문제에 집착한 경우는 없었다.<sup>33)</sup>

모듈러의 개념에는 두가지 목적이 병행하고 있다. 근대 건설의 대량생산은 표준화와 조립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적용가능한 치수 시스템을 고안하되 미적 부조화와 혼란을 피하고, 건축가에게 예술적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시적 질서와 조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비트루비우스, 알베르티로부터 내려오는 고전건축의 비례이론을 수용하여 근대적 치수로 변용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리하여 미터법의 추상적인 수치 대신 인체의 치수가 다시 한번 도입된다. 인간이 건축의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적 전통을 근대에 다시 호출한 셈이다. 꼬르뷔제의 모듈러의 바탕에는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지배하는 비례의 법칙, 황금비의 규칙은 고금을 통해 동일하며 유효하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모듈러의 수학적 체계를 통해 동시대의 대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합리

주의적 사고는 고전을 지배하는 영원한 비례의 법칙에 기대어 달성될 수 있다는 이상주의, 근본주의적 사고와 별 모순 없이 만나고 있는 것이다.

## 5. 이해와 평가

르 꼬르뷔제가 취한 전략은 근본적인 원리에서 접근하면서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조명한다는 방식이었다. 동시에 새로운 것은 과거의 선례를 참고로 해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이었다. 이는 과거를 현재의 문제 의식에서 보는 한편, 현재의 현안을 과거의 참조를 통해 대안을 발견한다는 순환 내지 매개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텍스트로서 역사적 선례를 독해하고 재해석하여 현재에 원용하는 방식이었으며, 현재의 사물 역시 과거의 것과 동일한 원리에 지배된다는 그의 선형적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전략은 역사가의 과거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로지 만드는 이로서의 영감과 상상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역사적 선례를 이용하는 바탕에는 서구 건축의 역사에 대한 그의 체화된 이해와 전통에 대한 비판 정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건축의 위대한 전통이 여전히 오늘에도 쓸모 있는 가르침일 수 있다는 태도와 과거로부터 내려온 건축의 인습이 이제 낡아 빠져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모순된/양면적 태도는 그의 건축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란 콜쿠혼은 꼬르뷔제가 끊임없이 전통을 참조하면서 건축의 원리들을 불러오거나 그것을 적용해 새로운 해법을 산출했다고 말한다. 문화적 공백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재해석 과정이라는 것이다. 콜쿠혼이 강조하는 꼬르뷔제의 역사적 선례와의 관계 맺기의 방식은 '개념의 역전, 혹은 도치(displacement)'라는 것인데, 전통의 인습적인 이용에서 동떨어진 과격한 변용의 행위라든가, 고급건축 바깥에 속하는 요소들을 건축에 끌어들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한다.<sup>34)</sup> 매우 중요한 지적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밖에도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 선례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31) C. Rowe,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in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pp. 1-16

32) Le Corbusier, *The Modulor*, Cambridge, The MIT Press, 1973(1950)

33) 이영환, "꼬르뷔제의 조화시스템인 모듈러 연구", 『건축역사연구 13』, 1997, pp. 145-153

34) A. Colquhoun, "Displacement of Concept", p. 51

여하튼 그의 건축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규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분명 혁신이기는 하되, 그것이 이전의 역사적 선례를 교묘한 방식으로 변형하고 뒤집어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라야 충분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연속적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꼬르뷔제의 시도를 근대의 새로운 유형을 낳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시대적 필요에 따라 전통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축 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꼬르뷔제가 이와 같은 독특한 전략을 취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레 생겨난다. 그것은 그의 건축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 아방가르드나 모더니스트가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열광하거나 신즉물주의(Neue Sachlichkeit)의 결정론에 사로잡혀 건축을 일면적으로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그가 건축을 보다 넓은 문화의 범주에서 보고자 했다는 것은 중요하다.<sup>35)</sup> 문화적 현상으로 건축을 이해한다는 것은 건축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복합적인 삶의 양상으로 본다는 것이며, 동시에 변화와 지속의 구도 속에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닌 영역(discipline)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그의 태도가 서로 양립할 것 같지 않고, 모순되기까지 한 삶의 여러 측면을 아우르고 화해시키고자 하며, 건축 내부에서도 상반되는 측면들을 통합하고자 하는<sup>36)</sup>, 외견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위한 그의 치열한 고투로 이끌었다고 추측된다. 그가 평생 지녔던 여러 대립적 모순들 간의 종합(synthesis)에의 강박은 그의 건축의 성격을 다층적이고 세설 혼합적(syncretism)이며<sup>37)</sup> 변증법적이라고 규정하게 한다.<sup>38)</sup> 역사적 선례에서 무시간적

이고 보편적 원리를 찾으려 하면서 동시에 동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입장은 꼬르뷔제로 하여금 고전주의자이면서 근대주의자이기도 하다는 모순된 얼굴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전기의 꼬르뷔제가 친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건축 디자인의 근대적 규범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쏟았으며 그러한 노력이 20,30년대의 걸작인 주택(villa)들로 결실을 맺었다면, 후기의 꼬르뷔제는 자신이 수립한 규율을 스스로 깨고 더욱 시적이며 조소적인 건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모듈러를 적용한 유니떼 다비따지옹이나 규준선이 내재해 있는 룡상 성당에서 보듯이 그것은 전기의 입장의 전면적 부정이기 보다 진화 발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 점에서 보자면 그의 생애의 전반기는 역사적 선례와의 대화에서 무너진 건축 언어의 규칙을 재수립하려는 시기였으며 후반기는 그것에 바탕을 둔 자유롭고 주관적인 구사로 시정이 넘치는 작품을 산출한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6. 맺는말

역사적 선례는 서구 건축사에서 거의 항상 당대의 건축 디자인에 영향을 미쳐 왔다. 르네상스 건축이 고전 건축의 부활을 통해 가능했고 고전주의의 전통에서 보듯이 과거는 디자인의 이상적 모델이자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해왔다. 거기에는 전통에 대한 신뢰와 존경, 혹은 모방과 참조를 통한 완전성의 접근이라는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근세에 들어, 특히 듀랑 이후, 과거의 선례를 이용 가능한 어휘들의 창고이자 선택적 조합과 조작의 원천으로 보게 되었다. 한편 신구 논쟁 이후 근대주의자들은 과거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움의 우위를 주장하게 되었다. 르 꼬르뷔제 역시 다른 모더니스트들처럼 보수주의적 태도에 혐오감을 표시하고 이상 타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 역시 새로운 미학과 도덕의 도래가 시대적 요청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과거의 전적인 부정을 통해 시대를 열어간다는 미래주의적 태도와는 완전한 거리를 보이고 있었다. 그에게 역사

35) 근대건축을 기능주의로 이해하고 모더니스트들을 기능주의자로 간주하는 것은 근대건축에 대한 큰 오해이며 역사가가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다. 위대한 모더니스트들은 결정론자가 아니었으며 삶과 건축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에 담고자 노력했다. 꼬르뷔제가 특히 그러했다.

S. Anderson, "The Fiction of Fiction", in *Assemblage 2*, The MIT Press, 1987, 19-31

36) A. Colquhoun, "The Significance of Le Corbusier", pp. 163-170 C. Jencks, *Le Corbusier: Tragic View of Architecture*, Penguin Books, 1987(1973)

37) A. Tzonis는 꼬르뷔제의 건축이 다층적이고 세설 혼합적이지만 절충적은 아니라고 말한다.

A. Tzonis, "Syncretism and the Critical Outlook in Le Corbusier's Work" in *Architectural Design Profile 60*, p. 7

38) 그가 상반되는 것을 끌어안고 양자를 화해하고 통합하려는

노력은 모순의 지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이며, 양면적 면모를 보이기에 이중적임(dualism)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성/감성, 합리/직관, 전통/현대, 고급/대중, 건축/기계, 예술/기술 등 대립되는 것들이 한 데 모여 공존하며 때로 모순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적 선례로서 고전과 전통은 현재에 진정한 새로움을 가져다주는 유력한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그의 건축에서의 새로움이 조형 위주의 형태주의자나 전위 건축가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게 하는 소이다.

우리는 르 꼬르뷔제에게서 건축에서의 새로움과 혁신은 무조건적인 과거 부정이나 특별한 신기성의 추구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비판적으로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란 교훈을 얻는다. 이는 건축이 여타 예술과 달리 사회적인 맥락과 관습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특유의 사물적 속성으로 강한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건축사에서 전통과 관습은 현재의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역사적 선례와의 생산적인 만남을 통해서 보존되는 것이지 단순한 모방이나 반복에 의해서는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건축의 역사는 현재와 과거간의 창조적인 대화, 혹은 비평적인 상호 매개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선례의 재해석이야말로 오늘의 건축을 새롭게 하는 데 필요하고 유효한 작업일 수 있는 것이다. 꼬르뷔제의 건축이 잘 보여주듯이 근대건축에서 조차 연속적 측면과 단절적 측면이 공존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의 역사에서 진정 독창적인 작품과 건축가는 과거 경험의 지평과 현재의 가능성 사이를 매개하면서 새로운 영토를 열어나가는 데 성공한<sup>39)</sup>, 그래서 역사적 선례를 미래를 여는 토대로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 희귀한 경우를 지칭한다 하겠다. 르 꼬르뷔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1. Le Corbusier, *Toward a New Architecture*, London, Preager, 1960(1970)(『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장성수역, 태림문화사, 1987)
2. Le Corbusier, *City of Tomorrow*, trans. by F. Echell, Cambridge, The MIT Press, 1971(1929)

3. Le Corbusier, *The Modulor*, Cambridge, The MIT Press, 1973(1950)
4. Le Corbusier, *Journey to the East*, ed. by I. Zaknik, Cambridge, The MIT Press, 1987
- von Moos, Stanislaus, *Le Corbusier: Elements of Synthesis*, Cambridge, the MIT Press, 1982(1968)
5. Brooks, Allan, *Le Corbusier*, Priceton, Princeton U. Press, 1987
6. Curtis, William Jr, *Le corbusier: Ideas and Forms*, Oxford, Phaidon, 1986
7. Jencks, Charles, *Le Corbusier: Tragic View of Architecture*, Middlesex Penguin Books, 1987(1973)
8. Tzani, Alexander, *Le Corbusier's Work*, AD Profile 60,
9. Colquhoun, Alan, *Modernity and Classical Tradition*, Cambride, The MIT Press, 1989
10. colquhoun, Alan, *Arcitctural Criticism: Modern Architecture and Historical Change*,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12.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The Growth of a New Tradition*, Cambridge, Harvard U. Press, 1966 (『공간, 시간, 건축』, 김경준역, 1998, 시공문화사)
13. Banham, Reyner,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Cambridge, The MIT Press, 1980(1960)
14. Row, Colin, *The Mathematics of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Cambridge, the MIT Press, 1988(1976)
15. Rykwert, Joseph, *The First Moderns*, Cambridge, The MIT Press, 1980
16. Vidler, Athony, *Writing of the Walls*, Princeton,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7
17. Benevolo, Leonardo,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77(1966)
18. Gadamer, Hans Georg, *Warheit und Methode*, 1960(『진리와 방법』, 이길우 외 역, 문학동네, 2000)

39) 여기서 필자는 가다머의 해석학적 입장을 취한다. 즉 이해의 역사성과 이해의 조건으로서 선입견, 영향사에 대한 견해이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것은 전통과의 해석학적 대화에서 나온다. H. Gadamer, *Warheit und Methode*, 1960(『진리와 방법』, 이길우외 역, 문학동네, 2000)

# A Creative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 In Case of Le Corbusier -

Khang, Hyuk

(Professor, Kyung Sung University)

##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new paradigm of a period can be constructed by the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precedents or the dialectical mediation between the old and new. We can tell this process the creative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The continuity and rupture, the renovation and succession of the tradition can be understood by this interpretive insight that opens the new horizon in architecture. In order to prove this preconception this paper analyses the ideas and design principles of Le Corbusier. By showing how his main ideas and principles are formulated we can understand his unique position as a modernist and characteristics of his architecture.

It is also the another purpose of this paper. This paper first looks into various aspects of his architecture and his personal background, then investigates his unique approach to historical precedents. By the imaginative eye and comparison with inspiration he connected contemporary situation to the tradition and was able to deduce a new paradigm in architecture. His way of making relationship with the past was a priori, dialectical, and fundamentalistic. He always searched for universal norm, eternal rules, and timeless principles which are also modern and new. This both side shows well his characteristics and his architecture. Eventually he could invent a Modern language of architecture by the several ways of dialogue between the modern and the classical, new technology and old convention. We can say that his way of dialogue is a kind of re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precedents which enables open the future of architecture.